조선지식인의 서가 제4강 강의록 / 김풍기

2011년 7월 26일(화), 인문숲, 저녁 7:30~9:30

서당의 풍경과 독서

1. 서당의 역사

2. 서당은 어떻게 운영되었을까

3. 서당의 다양한 수업 방식

4. 서당에서 읽던 책

『천자문(千字文)』, 『명심보감(明心寶鑑)』, 『격몽요결(擊蒙要訣)』, 『소학(小學)』 등

(1) 천자문

<천자문>을 지은 사람은 주흥사(周興嗣, 470?-521). 소자범(蕭子範), 왕희지(王羲之, 321-379)가 써놓은 것에 주흥사가 차운(次韻)한 것이라는 설.

<천자문>은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널리 읽힌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하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천자문>은 1575(선조8) 전라도 광주에서 간행된 '광주천자문(光州千字文)'. 그러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1583년(선조16)에 간행된 '석봉천자문(石峰千字文)'.

시기별로 보아도 현재 전하고 있는 <천자문> 인간본(印刊本)으로는 15세기의 것이 2건, 16세기의 것이 7건, 17세기의 것이 11건, 18세기의 것이 10건, 19세기의 것이 17건 등으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다. 게다가 일제 시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출판되어, 1913년 新舊書林(서울), 1913년 在田堂書鋪(대구), 1919년 漢南書林(서울), 1923년 新安書林(서울), 1925년 大成書林(서울), 1930년 崔雄烈書店(수원), 1935년 三成書林(수원), 1935년 洛濱書堂(박팽년 초서, 대구), 1937년 普賢寺(김인후 초서, 묘향산) 외에도 다수가 발견된다.

『천자문』이 초학 교재로서 가지는 단점. 한자의 난이도 문제다.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인(訓蒙字會引)',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천자평(千字評).'

(2) 계몽편

작자는 물론 편찬 연대조차도 불분명. 그 중요도는 서당의 초학교재(初學敎材) 중에서 수위를 차지함.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계몽편』은 조선 현종 무렵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1], 판본 확인 결과를 내세워 가장 오래된 판본인 전주본의 상한선을 조선 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제시하기도 한다.[2] 그렇지만 지금도 자주 발견되는 판본은 주로 일제 강점기에 목판본 혹은 목활자본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방각본 계통의 책들. 게다가 『계몽편』의 한문 원문만 수록된 책보다는 『계몽편언해』라는 제목으로 한문 원문과 한글 번역이 함께 수록된 판본이 대종을 이룬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주로 발매되었던 이 책은, 전주, 경성(서울) 및 안성 지역에서 발행된 판본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책의 체재는 서론격에 해당하는 수편(首篇)을 시작으로 천편(天篇), 지편(地篇), 물편(物篇), 인편(人篇)으로 나누어 내용 구성이 되어 있다.

『계몽편언해』는 이런 방식으로 상식에 가까울 정도의 쉬운 내용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나간다.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고, 해가 뜨면 낮이고 해가 지면 밤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내용부터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춘하추동(春夏秋冬), 큰달과 작은달과 윤달, 산과 물, 천(川)과 강(江), 구(丘)와 강(岡), 오악(五嶽), 오행(五行), 날짐승과 길짐승, 각종 곡식의 종류, 과일, 꽃, 사물의 무게와 숫자, 인간의 윤리, 독서, 구용(九容), 구사(九思) 등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인간 생활 전반에 걸쳐 누구나 알아야 할 상식을 쉽고 꼼꼼히 보여준다. 분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동들이 이 책을 통해 얻는 지식의 양은 만만치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당의 학동들은 『소학』을 읽고 당시(唐詩)를 외우며 사서(四書)를 공부하는 학문의 바다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3) 통감

『자치통감』을 편찬한 사람은 사마광(司馬光). 왕안석의 개혁 정책에 반대하던 사마광은, 신종의 등극과 함께 정치 핵심에서 서서히 멀어져갔다. 결국 신종 희녕 5년(1072) 사마광은 낙양으로 내려갔고, 이때부터 역사서를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오랫동안 자료를 모으고 읽고 정리한 끝에, 신종 원풍 7년(1084)년 책을 완성하여 황제에게 올렸다.

애초에 사마광은 『통지(通志)』라는 제목으로 8권의 역사서를 편찬하여 황제에게 진상한 바 있다. 신종은 그것을 읽고 기뻐하면서 『자치통감』이라는 제목을 하사하고 서문을 지어주면서, 역사서를 편찬하여 올리라는 명을 내렸다고 한다.

사마광의 『자치통감』은 주(周)나라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부터 시작하여 진(秦), 한(漢), 위진(魏晉), 수(隋), 당(唐), 오대(五代)를 거쳐 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6년(959)에 이르기까지 16왕조 1362년간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기록한 책이다. 총 324권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편찬하기까지 1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렸다.[3]

---

1) 같은 논문, 172쪽 참조.
2) 김해정, 「계몽편언해의 비교 연구」(『국어문학』 제33집, 국어문학회, 1998), 94쪽 참조.
3) 사마광이 편찬한 「고이(考異)」 30권까지 포함하면 총 354권 분량이 된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자치통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시대. 『자치통감』의 편찬이 끝나서 황제에게 바친 것은 1084년 송나라 신종(神宗) 원풍(元豊) 7년의 일로, 고려 선종(宣宗) 원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책이 인쇄되어 반포된 것은 1092년(송 철종7년 / 고려 선종 9년)의 일이며,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할 때 이미 참고문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고려 인종 23년(1145)에는 고려에 수입되어 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당시 고려는 귀중도서를 비롯해서 중국의 많은 책들을 수입하는 중요한 나라였고, 이에 대한 우려는 이미 소동파(蘇東坡)와 같은 문인들에 의해 제기된 바 있다. 고려 이후 우리 나라 선비들의 압도적인 짝사랑의 대상이었던 소동파는 황제에게 올리는 글에서, 고려로 유출되는 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 글을 보면 송나라의 지식인들은 고려의 서적 수입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다. 책의 수입 연대를 정확히 고구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자치통감』이 출간되고 얼마 안 되어 고려에서 수입되어 읽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서(劉恕)의 『자치통감외기(資治通鑑外記)』, 사마강(司馬康)의 『통감석문(通鑑釋文)』, 주희의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강지의 『통감절요(通鑑節要)』(=『소미통감(少微通鑑)』). 세종 때 『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와 『자치통감강목훈의(資治通鑑綱目訓義)』.

4) 권중달, 앞의 책, 22쪽 참조.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참고자료 : 천자문

弔民伐罪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죄 지은 자들을 정벌한 분들은,
周發殷湯	주나라 무왕인 發과 은나라 탕왕이시다.

省躬譏誡	자신의 몸에 책망 받고 경고 받을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寵增抗極	영화로움이 더해져 최고조에 이르렀는지를 살피라.
殆辱近恥	위태로움과 굴욕은 부끄러움에 가까우니,
林皐幸卽	숲과 언덕으로 기꺼이 나아가라.
兩疏見機	소광(疏廣) 소수(疏受)는 기미를 알아차려[5]
解組誰逼	도장 끈을 풀면 누가 핍박하겠는가.
索居閑處	홀로 떨어져 살고 한가로이 거처하니
沈默寂廖	잠긴 듯 말이 없고 고요하여라.
求古尋論	옛 것과 옛 사람들이 논의한 바를 찾으며
散慮逍遙	근심을 버리고 유유히 거닐며 만족해한다.
欣奏累遣	기쁜 일은 아뢰어지고 걱정은 내쳐지며
慼謝歡招	슬픔은 하직하고 환희는 손짓하여 부른다.
渠荷的歷	개천의 연꽃은 빛이 선명하고
園莽抽條	울안의 잡초는 죽죽 뻗어 우거졌다.
枇杷晩翠	비파나무는 늦게까지 푸르고
梧桐早凋	오동나무는 일찍 시든다.

女慕貞烈	여자는 지조의 곧음과 굳음을 사모하고
男效才良	남자는 才士와 賢人을 본받는다.

孝當竭力	효도함에는 마땅히 힘을 다하고
忠則盡命	충성하면 곧 목숨을 다한다.

上和下睦	윗사람이 온화하면 아랫사람이 화목하고
夫唱婦隨	지아비가 부르면 지어미는 뒤에 따른다.

5) 한나라 宣帝 때의 博士인 소광과 그의 조카 소수. 태자의 스승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물러나야 할 때를 알고 벼슬을 그만두고 은거함.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